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공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수양회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도, 자연도, 사람들도 더욱 살갑게 느껴집니다. 수양회를 통해 얻은 선한 기운을 곳곳에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의 꽃이 피어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아름답게 머물어가는 열매는 우리의 게으름을 꾸짖는 듯합니다. 다시 한 번 기도 에 힘쓰는 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흘리는 정직한 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영글어가게 하시고,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가야할 길을 잃지 않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58. 시편133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2(통35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성경봉독 막10:17-22 김훈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씀 그 말씀 때문에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찬 양 539(통483).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포된 말씀을 근심거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욕심을 부인하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믿음의 디딤돌로 주신 말씀을 삶의 걸림돌로 여기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득실의 계산을 멈추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동호회	말씀 : 김재흥 목사
	기도 : 이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아름 선생	서상현 학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박두석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박두석 박성실 이건화 정경례
	헌금위원	한완식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질서와 무질서

우리네 인생살이는 질서에서 혼돈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다시 질서에서 혼돈으로 끝없이 되풀이 된다.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를 먹어가는 인생여정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종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붕괴와 무질서를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안전성과 공들인 계획을 무너뜨리는 위기들 - 질병, 사고, 실직, 헤어짐 등에 의한 무질서는 인생전반에 자주 나타난다. 그러한 무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조금씩 재조정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러한 변화의 시간을 견디어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새우기 전에 또 다른 무질서를 직면하게 되면 상실감과 큰 슬픔을 느끼게 된다.

질서와 무질서, 관계맺음과 외로움, 점진적 발전과 급작스러운 혁명, 안전과 불안정 사이의 긴장은 늘 존재한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옛 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길잡이가 된다.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되면 옛 질서는 무너진다. 탄생과 죽음의 과정도 그와 다르지 않다.

변화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변화에는 항상 외로움과 불안정함이 뒤따른다. 외로움과 불안정함이 삶의 한 부분이며, 변화를 위해 겪어야만 하는 부분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많은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 인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때 우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같다. 삶은 발전하고, 변화는 계속된다. 삶의 변화 가능성을 막으려 할 때 잠시 동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다. 삶의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과 운동성의 파장은 너무 커서 저항할 수 없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작은 이례적인 사건과 내일의 새로운 질서가 되는 선구자적인 사건을 잘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외로운 상태를 견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하게 안전에 집착하며 발전과 변화를 거절해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정 또한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안정된 질서를 바탕으로 불안정과 무질서를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볼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지나친 혁명주의자,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로 취급 받는다. 독재자들은 자유를 위한 운동을 억압해 왔다. 지도자들은 항상 그래 왔고 무정부주의자들은 독재자의 힘이 약해진 때를 틈타 봉기했다. ……

발전의 표지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으며, 발전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분명한 원칙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발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 문화,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

둘째, 세계와 모든 개인은 발전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나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옛 질서를 잘 간직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현재로 흘러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 미래의 삶을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귀중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겨 새로운 질서 속에 그 가치들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린 자세, 사랑, 전일성, 통일, 평화, 치유와 구제, 용서와 같은 것들이 그런 가치이다.

셋째, 성숙은 공동의 작업, 대화, 소속됨을 통해 온다. 더욱 깊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강한 안정감이 필요하다. 안정감이 확보될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다른 이들과 더불어 불안정 속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

넷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적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자신도 다른 이를 억압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보호막과 방어기제들을 성숙을 통해 부술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다섯째, 그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상, 꿈, 이상, 두려움에 의해 왜곡된 외로움을 포기하고 사실에 근거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 안의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갈망정 자유롭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진리를 소유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 안기는 과정이다. 진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이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사람을 찍다

유흥준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찍어야지만 산다
독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사람이 사람을 찍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을 찍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
얼굴에 저승꽃이 핀다
인기척 없는 독거
노인의 집
군데군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었다
시멘트 마당 갈라진 틈새에 핀 이끼를 /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아무렇게나 굽어보다가 만나
냄새가 난다, 삭아
허름한 대문간에
다 늙은 할머니 한 사람 지팡이 내려놓고 앉아 /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다
깊고 먼 눈빛으로 사람을 찍고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한상의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김순복 전영웅 김필순 김재흥 최희영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애순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권호진
 백요현 이한림 김명희 김성한 조영순 강순배 이재문 홍복선 김수진
 전세종 김정민 조병무 송양진 배제선 최종훈 김금하 김정애 곽새롬
 리 봄 정연희 박규석 박경선 무명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영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이봉배
 이은자 이인웅 오승경 정두리 조순덕 하현철 최성애 김현주 노우중
 나승철 서지은 송동준 김진경 이경남 배연선 이재훈 허정호 김명순
 이교영 무명

감사헌금:

문복순 강순배 박상규 신연화 오정숙 김정민 전세종 박숙현 한학수
 이나래 강인숙 최종훈 김금하 정현희 무명

녹색꿈헌금: 김준우 박홍재 최경미 무명

생일헌금: 배부례 조영순 이정은 권미정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쉽	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랑방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3. 신앙실천 : 수박, 토마토, 옥수수 등 맛난 과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다음 주 : 갈라디아 속)

* 설거지 봉사 : 오재환 정희은 김세진 (다음 주 : 전충길 유지은 남창모)

* 새교우 : 김유승 (청년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